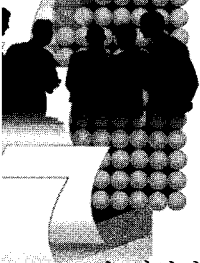


# 일반소비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



농업인의 농약용기에 대한 불만유형으로는 △농약용량 확인 불편 △오래 방치하거나 비에 젖으면 라벨이 떨어지는 등 라벨개선 필요 △용기를 합성수지병으로 대체 등이다. 농약설명서의 개선점으로는 △주요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강조 △상세한 자료제공 △쉬운용어 사용 △중요사항만 간결하게 작성 등이다. 또 농업인이 바라는 상세한 자료로는 △효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△희석배수의 정확한 제시 △약효지속기간의 명시 등이다. 안전성에 관한 설명으로는 안전사용기준이 “수확 3일전까지 5회사용”인 경우 수확 7일전부터 매일 연속적으로 5회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나 중요한 과제이다. 설명서에 10a(300평)당 사용량이 “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림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묻어야 충분히 묻었는지 알 수 없다. 또한 포장단위가 물20l 당 사용량과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계량을 할 수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추천량 보다 더 넣게 되어 고농도 살포의 우려가 있다.



인규승/충남대학교농과대학교수

내 농약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.

한편 농업인들이 접할 수 있는 농약관련 교육은 농약회사, 농업기술센터, 농협 및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. 그러나 내용이 농약교육의 극히 일부에

지나지 않고 집중적 교육기회가 많지 않다. 앞으로 교재내용을 쉽고 핵심적 내용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농약공업협회가 주관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성 교육이 필요하다. 농약안전교육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은 △농약의 잔류문제△농약의 약효 및 특징 △희석배수 및 살포량 등 농약사용법 △농약의 저항성 등이다.

## 소비자대상 교육 없어 편향적 사고 갖게 돼

일반소비자는 농약에 관한 교육이 거의 없어 관련 정보를 매스컴이나 잡지, 서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어 편향적이기 쉽다. 매스컴에 의한 식품오염 보도에 대한 주부들의 수용도 조사에 따르면 약 70%의 주부들이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는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. 소비자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농약공업협회와 소비자단체가 협의하여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, 농약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. **농약정보**

## 재출입기간 설정 및 안전성교육 강화

농업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재출입기간(Reentry)설정이 필요하다. 미국의 경우 작물 표면에서의 잔류량 및 작업시의 피부호흡 노출량을 조사하여 재출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. 국